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programs and times.

연기돌 4인방, 안방극장 점령 "개성 특특"

'연기돌(아이돌+연기자)'의 이해전술이 펼쳐지는 안방극장에서 데뷔작으로 흥행을 치며 연기력을 인정받는 행운아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JYJ 박유천(26)은 2010년 데뷔작 KBS '성균관 스텔라'로 그야말로 안방극장을 들뜨게 했다.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동방신기를 거쳐 JYJ로 활동 중인 그는 특이하게도 사극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2011년 MBC '미스 리플리'에서 현대적인 연기를 소화한 그는 올 상반기 SBS '육담방왕세자'에서 또다시 사극 연기에 도전했다.

사인국(25)은 올해 연기자로 데뷔한 데 이어 잇따라 두 작품에 연속 캐스팅되며 박유천의 바통을 잇는다. 올산 출신인 그는 고창 사투리를 한껏 살린 개성 강한 인물을 잇달아 맡으면서 본인에게도, 시청자에게도 어색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줬다.

한 그는 극중 1970년대 경상도 출신 더벅머리 가난한 운동권 학생 김창모와 2012년 록커의 1인2역을 하며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인국은 김창모든 윤운재든 주지할 없이 달려든다는 점이 감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자고 일어난 부스스한 모습에서 마치 다류를 보는 듯한 연기를 펼치는데 2009년 엠넷 '슈퍼스타K'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혜성 같이 등장한 서인국은 이후 사실 가수로서는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 연기자로 새롭게 태어났다. 여세를 몰아 22일 첫 선을 보이는 MBC 새 주말극 '아들 녀석들'의 주연으로 합류했다.

미쓰에이의 수지(18)는 2011년 KBS '드림하이'의 고해미로 성공적인 연기자 데뷔를 했다.

수지(18)는 1990년대 중후반 대학 신입생의 풋풋하고 싱그러움의 모습을 손에 잡힐 듯 예쁘게 연기했다. 그는 다시 지난 6~7월 방영된 KBS '빅'에서 거칠 것 없는



박유천



서인국



수지



정은지

당돌한 여고생 장마리를 맡아 톱톡 튀는 매력을 과시했다. 정은지(19)는 서인국과 함께 현재 tvN '응답하라 1997'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연기 수업을 받지도 않은 그는 열혈에 오디션에 갔다가 덜컥 주인공 성시원 역에 캐스팅됐고 16부를 끌고 왔다. 정은지

는 동료 배우와 제작진으로부터 "연기 천재"라는 극찬을 받는다. 나이답지 않은 감성 연기를 타고났다는 평가다.

2011년 에이핑크로 데뷔한 아이돌로서도 초짜인 정은지는 데뷔와 동시에 연기자로도 성공적으로 스타트를 끊은 보기 드문 케이스가 됐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음 8월 3일 壬午)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EBS EBS플러시1 and EBS플러시2 program listings with times and titles.

Learning section for 'Are they a very large company?' and '季札掛劍(계찰괘검)' with Korean and English text.

Learning section for '니하오 풍구위' and '鑰匙孩 yàoshi hái' with Chinese and English text.

Learning section for '오하오우 니혼고' and '頭を抱えて決めたそうです。' with Japanese and English text.